

보도시점 (지 면) 4. 29.(월) 석간  
(인터넷) 4. 29.(월) 18:00

## 서울지역 1차 수출바우처 및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참여기업 선정

- 2024년 1차 수출바우처 403개사 선정 약 157억 지원
-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86개사 지정

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(청장 이병권, 이하 서울중기청)은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수출바우처 사업 및 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.

2024년도 1차 수출바우처사업은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, 최종 선정된 403개사에게 약 157억원을 지원한다.

수출바우처사업에 선정되면 전년도 수출액 규모\*에 따라 3천만원부터 최대 1억원을 지원받으며, 정부 보조율\*\*에 따른 자부담을 포함하여 바우처형태로 지급된다.

\* 규모별 지원한도 : (내수) 3천만원 / (초보) 3천만원 / (유망) 4.5천만원 / (성장) 7천만원 / (강소) 1억원

\*\* 매출액 100억원 미만(70%), 100~300억원 미만(60%), 300억원 이상(50%)

바우처란 수출바우처 누리집(www.exportvoucher.com)의 서비스 메뉴판\* 내 다양한 수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가상 쿠폰으로 원하는 서비스와 수행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\* ①조사/일반컨설팅, ②통번역, ③역량강화 교육, ④특허/지재권, ⑤서류대행/현지등록,

- ⑥홍보/광고, ⑦브랜드 개발·관리, ⑧전시회/행사/해외영업지원, ⑨법무·세무·회계 컨설팅,
- ⑩디자인개발, ⑪홍보동영상, ⑫해외규격인증, ⑬국제운송, ⑭무역보험·보증

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사업은 전년도( '23년) 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, 올해는 총 86개사가 선정되었다.

글로벌강소기업 1,000+ 프로젝트에 선정되면 지정 첫 해에 한해 수출바우처를 자동 발급받을 수 있으며, 20여개 유관기관의 수출지원사업, 정책금융, 보증·보험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다.

특히, 전년도( '23년) 수출실적이 500만불 이상인 강소와 강소+ 단계 기업은 정부 R&D 사업과 지자체 자율프로그램 등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.

사업수행과 관련한 내용은 수출바우처 누리집(www.exportvoucher.com)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, 기타 세부 사항은 수출바우처 콜센터(055-752-8580)로 문의하면 된다.

담당 부서	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수출지원센터	책임자	팀 장	안미영 (02-2110-6329)
		담당자	전문관	채동준 (02-2110-6334)
			주무관	권은향 (02-2110-6337)

